

“광주역~송정역 철로 지하화...공원 부지 활용을”

광주선 푸른길더하기 시민회의 국내외 철도 부지 활용사례 포럼 뉴욕·파리 공원화 사례 공유 폐쇄팬 트램 활성화 방안 주장도

광주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광주역-광주송정역' 철로를 지하화 하고 공원부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철도부지를 폐쇄할 경우 트램을 이용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환경단체와 철로변 주민 등이 중심으로 결성한 '광주선 푸른길더하기 시민회의'는 지난달 28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선 푸른길을 위한 국내외 철도 부지 활용사례와 시사'를 주제로 두번째 월례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공원부지로 변경한 해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광주선의 방향을 제시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UCL' 대표는 '광주선 푸른길을 위한 해외 폐선부지 활용사례와 시사'라는 주제로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공원'과 '파리 프롬나드플랑데 공원'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뉴욕의 하이라인공원은 고가 철도를 공원화 한 민관의 공동 공공프로젝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1848년 허드슨 강변과 10번가 11번가에 위치한 공장과 물류창고를 연결하기 위해 로어 웨스트사이드에 설치한 화물전용 지상철도가 1925년 빈번한 사고 및 교통체증에 따른 운송 지체로 지상철로를 고가철도로 변경됐다.

하지만 1980년 유지보수 문제로 운행이 중단되고 우범지대화까지 됐던 철로 구간을 2009년부터 뉴욕시에서 도심철도 부지를 도시 공공자원으로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원화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하이라인이 지나는 연접블록과 인근지역을 특별목적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권 이양제, 용도구역 변경, 용적률(FAR)완화, 복합 용도전환 등의 구체적 통합관리방안을 계획초기부터 수립해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선택'과 '인공수로'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10TH AVENUE 광장'과 '전망대'는 공개 공원을 즐기는 장소로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파리 프롬나드플랑데공원은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고가철도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적 뿌리를 형성한 사례라고 정 대표는 밝혔다.

적절한 개발로 역사적 자산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공원으로 상부는 산책로 및 정원으로, 하부는 예술가들과 수공업자들의 작업공간으로 활용돼 전혀 다른 개념의 두 공간이 한 공간 내에 입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두 사례를 통해 도심철도부지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도시 전체 또는 인접한 지역의 녹지네트워크로 발전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도심철도로 인해 훼손된 지역공동체 회복과 도시 공공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 시민참여의 틀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선 철도부지의 푸른길 공원 조성은 기후위기시대,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과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 모두가 동의했다.

또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인 트램에 대해서도 도심을 가로 지르는 대중교통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선푸른길더하기시민회의는 앞으로 10월 '시민이 말하는 푸른길', 11월 '광주선을 시민에게'를 주제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광주시에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경의선숲길(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활용), 경춘선숲길 등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광주선 푸른길을 위해 광주시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선은 광주역-광주송정역을 잇는 11.9km 길이의 선로로, 지난 1922년 개통했지만 매일 통근열차 30편과 무궁화-세마호호 20여 편 등 하루 평균 50여 편의 열차만 운행되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0명 수준에 머물러 운영 적자를 이유로 광주시가 한국철도공사에 매년 15억원의 지원금을 납부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단풍철 다양한 행사·캠페인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다도해 해상·무등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섬·바다 여권', '야생동물과 거리두기' 캠페인 등을 진행해 가을철 국립공원공단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는 탐방객들이 국립공원의 명소를 돌아다니며 '여권'에 방문 인증 도장을 찍는 행사다.

도장은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등에 비치된 무인함에서 찍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명소를 찾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섬·바다 여권'은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국립공원 섬과 바다 20곳의 장소에서 인증도장을 찍을 수 있다.

10곳 이상의 장소에서 인증 도장을 찍으면 기념품도 제공한다. 섬·바다 여권은 5일 오전 9시부터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5000명 한정으로 신청가능하다.

국립공원공단은 10월 한달동안 섬·바다 여권 출시를 기념해 국립공원 여권 여행 영상 공모전도 실시한다. 다양한 체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3명)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각 10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거리두기'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 시기 야생에서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나 야생진드기와 접촉 시 신중후군출혈열, 쯤쯤나무시증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 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 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

광주시 서구 치매안심센터가 최근 광주시 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한 '제15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치매 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지자체 최초로 치매테마파크 '오매불망 힐링파크'를 개장하고, AI 돌봄로봇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치매정책사업을 추진했다. 또 가장 내 치매예방 인지활동을 주관하는 '치매안심대학'을 개강하고 치매전문 자원봉사자인 '파랑새메신저'를 모집하는 등 지역 내 치매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서구는 이번 장관 표창 수상으로 그동안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관리,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광주 서구 치매 프로그램의 우수함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치매 걱정없이 주민과 함께 웃으며 사는 서구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영산강길 안전·환경라이딩 캠페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근 안전한 자전거라이딩 문화 정착을 위한 '영산강길 안전·환경라이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한 '자전거로 대행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 지역 자전거동호회 등 150여명이 참가해 광주시청부터 승천보까지 59km구간을 달렸다.

국방부,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협약

국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맺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근무적합 직무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도시 인근 업무공간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장애 정

도와 학습능력을 고려한 업무적용 기초훈련부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훈련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고용 우수사례 등 정보공유, 중증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책상·의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인식 개선 및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처 우수사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공공부문 전반이 다시 한번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전남녹색연합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생물다양성 아카데미

무등산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도하는 시민과학자 양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아카데미'가 오는 7일부터 1박 2일간 진행 된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무등산국립공원과 평두메습지 일원 등지에서 시민과학자 양성을 위한 '무등산국립공원 생물다양성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고 4일 밝혔다.

1일차에는 입소식, 생물다양성 강의, 분류군별 이론 강의, 탐별 아카데미 프로젝트와 평두메습지 야간 곤충조사가 진행된다. 2일차에는 평두메습지 식물·곤충·조류(새) 조사, 탐별 토의 및 발표, 시상식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무등산 생태탐방원에서 하루 밤을 묵으며 행사에 참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참여자들이 탐별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해 평두메습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과 평두메습지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하는데 19세 이상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신청링크(bit.ly/2022_무등산국립공원_생물다양성이카데미)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기간	정상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